

마한 유적 '영암 옥야리 고분' 목관·옹관·석곽 확인

고대문화연구원 성과 보고 3~6세기 고분 28기 분포지

영암군은 5일 전남도문화재자료 제 140호인 시종면 옥야리 고분군 18호분에서 목관과 옹관, 석곽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월4일부터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대문화연구원은 이날 현장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성과를 보고했다.

이번 옥야리 고분군 발굴 조사에서는 목관 2기, 옹관 2기, 석곽 2기가 확인됐다. 앞서 조사된 17·19호분에 비해 18호분은 목관 2기가 가장 밀에 조성되고, 그 위에 옹관과 석곽을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1호 목관의 머릿부분에서 컷볼에 다

는 장식품인 금동제이식(金銅製耳飾) 한 쌍이 장식고리까지 남아있는 상태로 발굴됐으며, 그 밑에서는 목이 긴 향아리인 장경호(長頸壺)가 매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2호 석곽은 바닥석을 조성한 후 편평한 석재 4장을 이용해 벽을 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곽 내벽은 붉은 칠을 했고, 바닥에서는 목이 짧은 향아리 단경호(短頸壺)와 철기류가 발굴됐다.

이번에 조사된 목관은 1993년 조사해 고분 중심으로 목관이 안치된 것이 확인된 '영암 신연리 9호분'과 비슷한 양식이다. 신연리 8호분 중 5호 목관은 다른 목관에 비해 규모와 출토유물 면에서 이번 옥야리 18호분 1호 목관과 흡사한 모습인 것으로 보고됐다.



영암군은 나주와 함께 다수 고분이 집중분포하고 있어 고대 마한이 성장하고 그 세력이 자리한 중심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중 옥야리 고분군은 3~6세기 고분

28기가 분포해 있어 밀집도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주변에는 당시 최고 권력층 또는 귀족층의 무덤인 '영암 내동리 쌍무덤', '옥야리 방대형고분', '신연리 고분군' 등이 있다. 이 시기 대형고분은 한 고분(분구)에 석실묘·석곽묘·옹관묘·토광묘 등 여러 매장시설이 다장(多葬)돼 흔히 '아파트형 고분'이라 불린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옥야리 18호분에서 나온 다양한 자료는 향후 추가 발굴할 옥야리 고분군과 영암 일대의 다른 고분군과 비교해 각 고분 간의 선후관계, 혈연관계, 지위관계와 함께 당시 마한의 중심지로서 그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김가공 일손 보탬

해남군은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5명을 김가공업체 4개소에 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11월28일 입국해 마약검사 및 산재보험가입 등 절차를 거쳐 업체에 배치됐다. 12월 중 2개 어가에 8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군은 2023년 도입 인력으로 법무부로부터 130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수시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용기간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필리핀 등에서 어업분야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8명이 입국, 15개 어가에 고용됐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목공예 취미교실 운영 돌봄노동 활동가 대상

강진군이 최근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에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와 유치원 방과 후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돌봄노동 활동가를 위한 목공예 취미교실 강좌를 개최했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꿈꾸는 나무' 최은주 대표가 강사로 참여한 이번 취미교실은 참여자들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팅 도마를 만드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3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는 도마나 접시로 사용할 수 있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돌봄노동 활동가를 위한 취미교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 교육, 여성복지 등을 위해 힘쓰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기를 높이고 활력을 재충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이 초등학교 돌봄전담교사, 유치원 방과 후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목공예 취미교실 강좌를 운영했다. 강진군 제공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완도군, 내년 1월20일까지

완도군은 내년 1월20일까지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발굴 대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 가구 △계절적 요인(난방, 의료비 등) 긴급 구조자 등 복지 위기가구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계층 등이다. 기간 동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복지 분야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탄소 온열매트, 생계비, 양곡 및 밀키트 등이 지원된다.

긴급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자원을 우선 지원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 연계 및 통합 사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민관이 협업하여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연락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7일부터 14개 읍·면 순회

해남군은 7일부터 22일까지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공람공고와 함께 14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도시계획의 정비 규정 등에 따라 군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사항의 재정비와 군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현안문제 해결,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수용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등 군관리계획 재정비입안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는 7일 송지면을 시작으로 8일 마산면, 12일 해남읍, 계곡면, 화산면, 14일 산이면, 문내면 15일 삼산면, 황산면, 19일 옥천면, 20일 화원면, 북일면, 현산면, 22일 북평면 순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각 읍면사무소이다.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10만5048㎢ 해남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하고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2035년 근기본계획안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 군관리계획 자료를 관주도의 하향식 개발 계획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계획 지표

수립함으로써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정립하고 해남군 공간구조와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수렴 및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3월 전라남도 승인신청, 6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군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예정된 시간에 참석하면 된다. 별도의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설도시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주민공람내에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신활력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청년 농업인재 육성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농어촌개발추진단)이 전남생명과학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활력 청소년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해 지역 농업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 따르면 신활력 청소년아카데미과정 가운데 창업농 멘토·멘티과정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안준섭 팀장과 최영준

팀장을 멘토로 영마이스터 양성과정 학생 30명이 참여 중으로, 지난달 28일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설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맡은 안준섭 팀장은 영농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국가 영농기관 및 연구기관을 안내하고 지역의 농업전문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구체적 활용방법 등을 소개하며 진로에 대

해 고민 중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유영철 추진단장은 "신활력 청소년아카데미를 통해 귀한 지역인재인 청년농업인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활력 청소년아카데미과정은 산업체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1년 시작해 화훼장식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인공수정사, 식육처리기능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확대 운영 진도군, 군민 노후 건강 보장



진도군이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를 확대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는 관내 의료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의료진이 주 1회 마을을 방문해 물리치료 서비스와 의료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하는 의료진들이 아픈 주민들을 면밀히 살피고 개별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 내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2024년 무의도서 지역까지 확대 운영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농촌진흥공포 선정 예산 확보 진도군, 54억원

진도군이 2024년 농촌진흥공포사업에 선정돼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 30억원 △꿀벌자원 육성품종사업 24억원 등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은 토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고체형 미생물을 대량 생산하는 특허기술을 적용해 자동장비 체계 제작·설치부터 준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400톤 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해 노지작물 재배시 농가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고체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꿀벌자원육성품종 구축사업은 꿀벌 집단폐사와 질병 발생 빈도가 늘면서 흔들리는 농업생태계를 바로 잡고 국내 육성 품종 우수 꿀벌(원여왕벌)을 집중 증식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진도=백재현 기자